

어린이박물관 길라잡이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길라잡이



조선 왕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기는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 안내서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구석구석 돌아볼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아 만들었어요.

자, 모두 함께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조선시대로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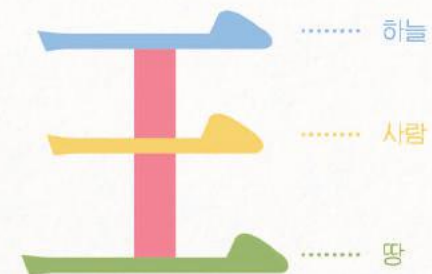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야.

조선이란 나라는 1392년에서 1897년까지 약 500여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는데,
나라를 다스린 임금은 모두 스물일곱 명이었대.
하나의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기 어려워.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 선양이라고 하는데,
고려가 그랬던 것처럼 조선도 선양 제도로 왕위를 이어 갔어.
너희들은 조선이라 하면 굉장히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조선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모습과 생각에 영향을 많이 준 나라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도 조선시대에 만들었잖아. 사계절을 지내기에 알맞은
따뜻한 온돌방과 시원한 마루가 있는 한옥, 한복, 명절날 차리는 차례상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조선시대에서 이어져 왔어.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모모야.
오늘은 내가 친구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과거로
안내하려고 왔어.



조선시대 왕은 하늘의 뜻을 받아
땅과 사람을 이어 주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살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늘과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파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선시대 왕은 하늘의 뜻을 받아 땅과 사람을 이어 주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늘의 뜻을 받은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로 여겼어.

왕실의 탄생 이야기

왕자와 공주의 탄생은 온 나라의 관심과 기쁨 속에서 이루어졌어.
많은 왕자들 중에서도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왕자를 왕세자라고 해.
탄생부터 특별했던 왕자와 공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 왕세자 탄강진하도 병풍

순종(원자)의 탄생을 신하들이
예를 갖추어 축하하는 모습을 담은
병풍이야.



▲ 예종 태항아리(외항아리)

Q. 무엇에 쓰인 항아리일까?

지금 보는 항아리는 왕자나 공주의 탯줄(태)을 담았던 항아리인데, **태항아리**라고 해. 탯줄은 엄마와 아이
를 이어 주고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아주 신비롭게 여겼어. 아이의 배꼽에서 떨어진 탯줄은 다음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는 일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로 생각했지. 그래서 탯줄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
이 무척 엄격했어. 태를 언제, 어디에 모실지도 좋은 날과 장소를 고르고 골라서 택했지.

태는 물로 백번쯤 씻은 다음, 다시 향은주라는 귀한 술로 씻었어.
그런 다음 태를 담은 항아리 바닥에 **동전**을 놓고 그 위에 태를 올려.

태항아리를 묻는 자리에는 **태지석**을 함께 묻었는데, 태지석에는 태항아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이곳
으로 옮겼는지 그런 내용이 쓰여 있어. 훗날 태실의 주인이 왕이 되면, 태실도 그에 맞게 둘레에 멋진 비
석도 세우고 난간을 만들어 새로이 장식을 했고.



▲ 영조 태실에서 발견한
개원통보



▲ 영조 태지석



▲ 1928년에 찍은
예종 태항아리와 태지석



▲ 예종 태실과 비

국립전주박물관 역사실에는
예종의 태항아리와 태지석이 있어 직접
살펴볼 수 있지.

전주 경기전에 가면
〈예종 태실과 비〉가 있으니
가족과 함께 가서
살펴보고 이야기도 나눠 봐.



왕세자의 하루

Q. 왕세자는 무엇을 배우며 자랐을까?

왕세자가 두세 살쯤 되어 말하고 걷기 시작하면 원자¹⁾를 위해 스승을 곁에 두었어.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두세 살에 무엇을 배웠냐고?

원자의 선생님인 보양²⁾관은 늘 원자 곁에서 원자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며 도와주었다. 왕세자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바른 말과 행동을 배우고, 감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거래. 스승뿐만 아니라 왕세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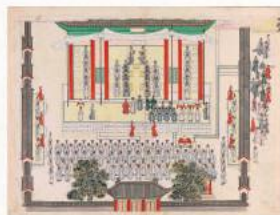
이 또래의 친구(배동)들도 곁에 두어 협동하고 타협하는 것등을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했어. 또 학문이 깊고 품성이 좋은 신하 가운데 원자의 스승을 뽑았지.

원자가 여덟 살쯤 되면 왕세자가 되고, <소학>이나 <주자가례>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왕세자³⁾를 위해 입학식을 치렀어. 입학식 때는 유교 성인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성균관 박사에게 가르침을 부탁하는 의식을 했어. 이것은 세자³⁾가 스승에게 최고로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 스승이 배움을 허락하면 왕세자와 스승이 예를 갖추어 서로 묻고 답하며 배움을 이어 갔지.

▼ 왕세자입학도



1. 출궁의
성균관에 가기 위해 궁궐을
나서는 의식



2. 직헌의
공자의 신위에
술잔을 올리는 의식



3. 왕복의
박사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의식



4. 수폐의
박사에게 폐물을
올리는 의식



5. 입학의
박사에게 수업
받는 의식



6. 수하의
신하들에게 축하인사를
받는 의식

1) 원자

왕의 맏아들. 그러니까 왕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야. 왕위를 이어받을 때 원자가 세자가 되고, 세자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였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

2) 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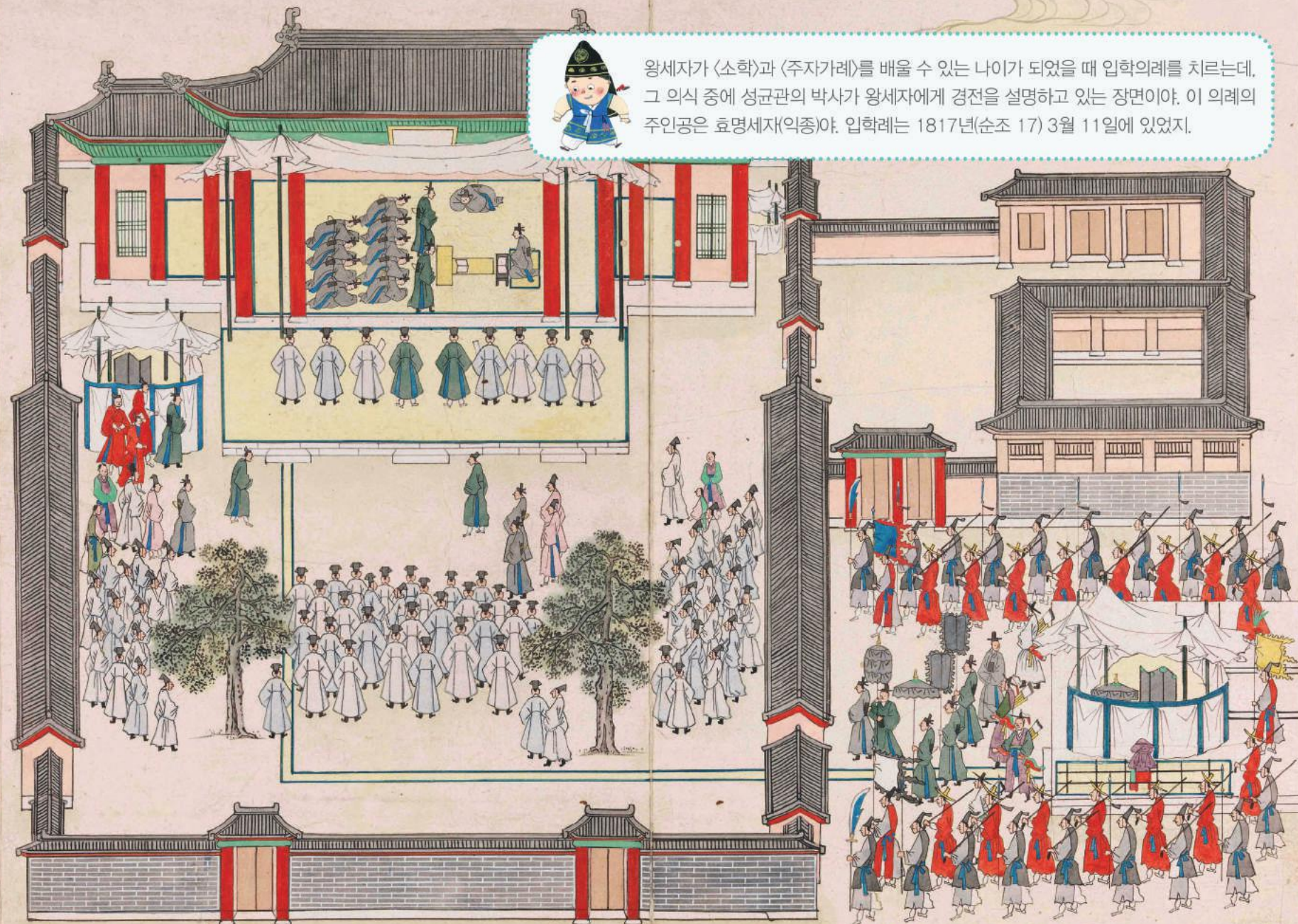
보좌하고 기른다는 뜻이야.

3) 왕세자와 세자

왕조 시대에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 왕세자를 줄여서 세자라고도 해. 고대에는 태자(太子)라고 했는데 고려 때부터 세자라고 했어.



왕세자가 <소학>과 <주자가례>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입학의례를 치르는데, 그 의식 중에 성균관의 박사가 왕세자에게 경전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야. 이 의례의 주인공은 효명세자(익종)야. 입학례는 1817년(순조 17) 3월 11일에 있었지.



Q. 왕세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왕실에서 왕세자로 책봉되면 크게 세 가지 생활이 달라져.
첫째는 왕이 들 수락을 미리 살펴보는 **시선¹⁾**을 해야 하고, 둘째는 아침저녁으로 왕에게 **문안²⁾** 인사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드리는 것처럼 말이야. 인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왕세자는 왕에게 올리는 수라상의 음식들을 살펴봐야 해. 문안과 시선을 하기 위해서 왕세자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예를 갖추며 준비했을 거야.

1) 시선

음식을 살펴본다는 뜻이야

2) 문안

웃어른께 아침에는 잘 주무셨는지 여쭙고 저녁에는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라고 인사하는 거지



8

세 번째가 공부하는거야. 아침 문안과 시선이 끝나면 왕세자는 동궁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은 뒤, 조강이라 하는 오전 공부를 해.

점심을 먹은 뒤에는 낮 공부인 주강을 했고 계속해서 오후 공부인 석강까지, 하루 종일 공부야.

공부를 마치면 저녁에 다시 왕이 잠자는 침전으로 가서 문안과 시선을 한 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지. 세자는 유교 경전이나 역사 말고도 음악, 무용, 말 타기, 활쏘기 같은 것도 배웠어.



▲ 유교 경전을 외우거나 학습한 내용을 평가할 때 쓰던 경서통과 죽간



9



▲ 정조 옥인함과 옥인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내린 옥인, 죽책, 교명이야. 옥인에는 ‘왕세손인(王世孫印)’이라고 새겼어. 죽책과 교명은 책봉과 관계있는 문서로 교명에는 교훈과 왕세손으로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조언의 글이 기록되어 있지.



▲ 영조 교명



▲ 정조 죽책

나는 왕이로소이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여겼던 나라야. 하늘의 뜻을 받은 왕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은 바로 예와 덕이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구절이 **서경¹⁾**에 나와. 왕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 신하들과고는 **경연²⁾**을 하며 이야기하고 공부했어. 왕과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어. 왕과 신하가 서로 믿으며 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지.

❶ 1) 서경

중국 은나라, 주나라 등 고대의 정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영향을 준 중요한 책이기도 해. 사서삼경이란 말 들어봤지? 유교와 관련된 기본 경전으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사서라 하고, 시경, 서경, 주역을 삼경이라고 하지.

❷ 2) 경연

임금이 신하들과 나라 일에 대해 협의하고,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지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 이어졌어.

Q. 왕은 백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조선의 왕들은 농업을 장려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왕은 벼를 심고 그 해 가을 수확한 벼집으로 정자의 지붕을 만들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도 했지. 왕은 벼농사를 지어 보는 **친경**을, 왕비는 누에를 치고 누에고치를 거두는 **친잠**을 했어. 왕이 백성의 생활 가운데 의(옷)와 식(음식)을 몸소 살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친구들은 혹시 설문 조사에 대답을 해 본 적이 있어? 놀라지 마, 조선시대에도 설문 조사가 있었어. 세종대왕은 세금을 걷는 법을 바꾸기 전에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뜻을 묻고 아뢰라고 명을 내리기도 했어. 대궐 문 위에 신문고를 만들어 뒤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수 있도록 했어.

또 임금이 궁 밖으로 나와 행차할 때 임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팥과리나 징을 치면 임금에게 직접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수 있는 **격쟁 제도**도 있었어. 격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독특한 제도야.

책은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 이념인 유교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문자야. 한글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창의적인 문자지. 백성들이 유교 도덕을 잘 배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 대신 그림과 한글로 책을 펴내 널리 알리기도 했어.



◀ 청의정

1636년 (인조 14)에 세워진 궁궐에서 유일한 초가지붕



동궐도 ▶



▲ 농사직설

1429년 (세종 11)에 왕의 명으로 백성을 위해 지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맞는 농사법을 기록한 책



▲ 훈민정음 해례본



Q. 왜 하늘에 대해 더 알려 했을까?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사인데,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천문, 날씨, 절기)을 더 잘 알아야 했지. 조선의 왕은 농사를 짓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천체, 시간, 기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발명하도록 했어.

농부한테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해. 그래서 왕은 별시계,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도록 했지. 별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해 별시계 구실을 하는 **혼천의**,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 **앙부일구**, 해가 없는 날에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물시계 **자격루**가 바로 하늘을 읽는 도구들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마르는 가뭄이 들면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 이렇게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양을 재서 이 기록을 모아 다음 해에 비가 얼마나 올지 알 수 있다면 농사를 지을 때 정말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발명한 기구가 **측우기**야.



▲ 천상열차분야지도

하늘의 별자리를 12개로 나누고 땅과의 관계를 나열한 하늘지도
다른 천상열차분야지도도 보고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시 그린 지도야.



▲ 혼천의 혼천시계



▲ 앙부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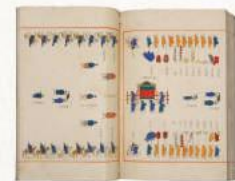
▲ 자격루



▲ 창덕궁 측우대

Q. 지금 우리는 수백 년 전 조선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600년 전 조선시대 왕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바로 조선 왕실의 우수한 기록문화 덕분이야. 조선의 대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꼽을 수 있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1대 왕 태조부터 25대 왕 철종까지 매일매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관청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어. 왕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했지.



◀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왕이 보던 어람용 의궤



◀ **효장세자책례도감의궤**
관청이나 사고에 보관하던 분상용 의궤

의궤는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인데, 국가와 왕실에서 치르는 중요한 행사를 기록해 놓았어. 왕의 지시 사항, 신하들의 보고 내용, 행사에 쓰인 물건과 비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행사 장면을 그린 반차도와 행사에 쓰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린 도설까지 있어서 의궤만 봐도 그때 치른 행사가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질 정도야.



▲ **강화도 외규장각 의궤**

의궤는 실록과 마찬가지로 여러 권을 만들어 나누어 보관했는데 왕에게 올리는 어람용과 관청이나 사고에 보관하는 분상용으로 구분해서 만들었어. 아무리 자세하게 기록해 놓아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었겠지? 실록은 완성되면 **사고**라는 책 창고 같은 곳에 보관했어. 사고에 보관한 실록은 3년에 한 번씩 꺼내어 바람에 잘 말려 다시 보관했고, 혹시 잃어버리거나 불에 탈까 봐 여러 벌을 만들어 곳곳에 나누어 보관했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면 조선의 왕들이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애쓴 걸 알 수 있어.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이 넘는 긴 조선의 역사를 이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

실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태종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어. 태종은 창피해서 “이 일은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사관이 실록에 ‘태종께서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는 말까지 써서 기록한 거야. 사관의 기록 정신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지.



▲ **전주사고**



조선 왕실의 멋과 맛

Q. 왕과 왕비의 옷은 무엇이 다를까?

왕과 왕비가 가장 예의를 갖춰야 할 때 입었던 옷을 살펴볼까?

대례복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때 입는 옷인데 예의를 갖춘 옷이야.

면복

면복은 즉위식이나 혼례식, 제례를 지낼 때 입는 옷인데, 궁중 최고의 예복이야.

면복은 입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면류관에 달린 구슬이나 옷에 있는 무늬의 개수가 달라. 황제는 12개 인 12장복, 왕은 9개인 구장복, 왕세자는 7개인 칠장복을 입었지. 면복의 겉옷인 곤복에는 왕이 지녀야 할 덕목이나 상징을 표현했어.



◀ 면류관



▲ 면복

구장복에는 어떤 무늬를 썼는지,
무늬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

▶ 폐슬



Q. 구장복 속 무늬를 살펴볼까?

용



▲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상징

불꽃



▲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처럼
백성들을 밝게 다스리라는 의미

평



▲ 화려한 아름다움을
의미

산



▲ 높은 산처럼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라는 의미

호랑이와 원숭이



▲ 호랑이의 용맹과 원숭이의
지혜를 본받으라는 의미

수초



▲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의미

쌀



▲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임금의 덕을 의미

도끼



▲ 좋고 나쁨을 분명히
가려내는 결단력을 의미

돌



▲ 각(궁)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악한 것을 등지고 선한 것을 향하라는 의미

Q. 적의 속 무늬를 찾아 볼까?

적의

왕비와 왕세자빈이 입는 대례복으로 옷 전체에 꿩 무늬를 장식해서 꿩 적(翟)을 붙여 적의라고 했어. 꿩은 친애와 백년해로를 상징하고, 꿩 무늬에 쓰인 청색, 백색, 홍색, 흑색, 황색은 인, 의, 예, 지, 신을 뜻하는데 왕비가 지녀야 할 덕목을 표현한 거래.



▲ 대수머리



▲ 폐슬



▲ 적의 (영친왕비 9등 적의)

Q. 왕은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만 먹었을까?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해. 수라상은 밥과 국, 탕 같은 기본 음식에 12가지 반찬으로 차리는 12첩 반상이야.

반찬은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특산물로 최고의 맛과 모양을 내어 차려. 그래서 왕은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수라상을 보며 백성들 살림살이가 어떤지 살펴볼 수도 있었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선을 보면 어부들 형편이 좋구나 생각했고, 작년보다 윤기가 없는 쌀을 보면 백성들 살림이 어렵겠구나 걱정하기도 했지.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생활이 힘들 때는 반찬의 수나 식사 횟수를 줄이기도 했어. 성종은 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했고, 영조도 검소하게 상을 차리라고 명령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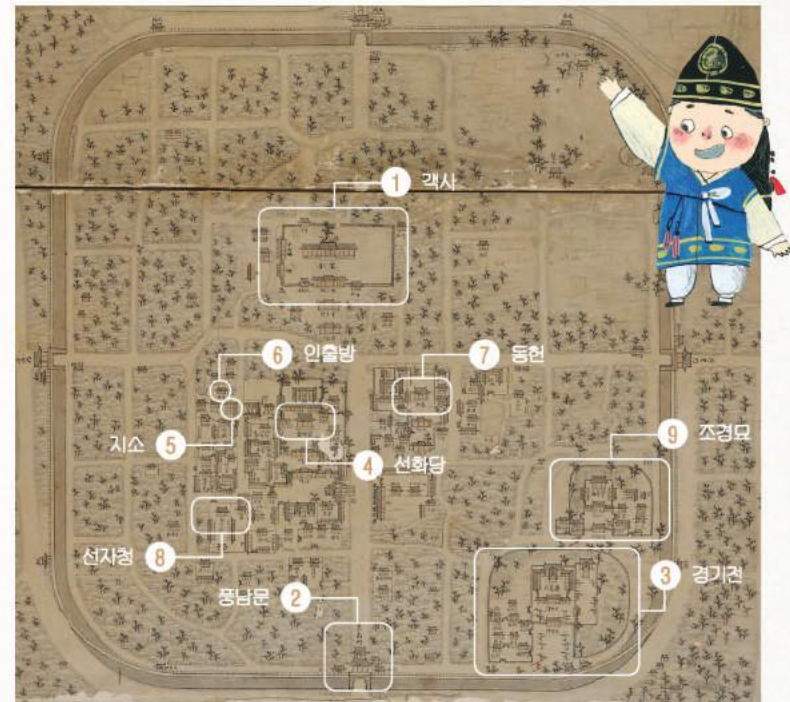
조선 왕실과 전주



▶ 태조 이성계 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주'라는 이름은 1403년 (태종 3) 전주부라고 한 데서 찾아볼 수 있어. 조선시대에는 수도 한양을 비롯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지역에 태조의 어진을 두었어. 함경도 영흥, 경상도 경주, 평안도 평양, 황해도 개성 그리고 여기 전주 경기전에 어진을 모셨지.

전주 사람들은 이곳에 어진이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을 거야. 그리고 왕실은 경기전에 어진을 두는 것으로 왕실의 권위를 지키며 나라 곳곳을 통치할 수 있었을 거고.



▲ 전주부지도(전주성 부분)

- 1 **객사** 고려·조선 시대에 고을에 설치, 외국 사신이나 출장을 나온 관원들이 머무른 곳
- 2 **홍남문** 전주 성곽을 지켜주던 남쪽 문
- 3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고 있는 곳
- 4 **선화당** 각 도의 관찰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곳
- 5 **지소** 종이를 만들어 국가에 바치는 특수 지방 행정단위로 전주의 자랑스러운 한지를 만들던 곳
- 6 **인출방** 책을 인쇄하는 곳
- 7 **동헌** 고을의 수령이 집무를 보던 곳
- 8 **선자청** 임금에게 진상할 부채를 만들던 곳
- 9 **조경묘**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시조비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



조선시대 전주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 봐



● 전라북도청



● 국립전주박물관



▲ 완산부지도

Q. 왜 전주에는 태조 이성계와 관계있는 장소가 많을까?

전주에는 조선 왕실과 관계가 깊은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그의 부인의 위패가 있는 조경묘, 조상의 묘가 있는 조경단이 그곳이야. 조선 시대 왕실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 곳이야. 조선 왕실은 나라를 세운 뒤 어진을 모시는 것으로 그 권위를 전국 곳곳에서 느낄 수 있게 했지. 전주에는 조경묘와 조경단까지 있으니 그 어느 곳보다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

▶ 조경묘



▼ 조경단, 전주 경기전(정전)



▶ 조경묘 안에는 이렇게 태조 조상의 위패를 모셔 놓았지

Q. 우리가 잘 모르는 전주사고 이야기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올랐어. 조선시대 초기에는 네 곳에 나누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전주야. 우리가 오늘날 온전한 조선왕조실록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주사고 덕분이야. 임진왜란으로 네 곳의 사고 가운데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 성주사고의 실록은 모두 불타 버리고, 유일하게 전주사고에 보관한 것만 남았기 때문이야. 경기전을 지키던 선비나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전주사고에 보관해 놓은 조선왕조실록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상의 지혜와 노력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전주사고를 지킨 손흥록 이야기

1592년 임진왜란으로 왜군이 전주 가까이 공격해 왔고, 전주사고의 805권 614책이나 되는 실록들과 중요한 책들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지. 선비 손흥록은 고향 친구 안의와 조카, 하인 30여 명과 함께 많은 책들을 정읍 내장산의 용굴암으로 안전하게 옮겨 실록들을 지켜냈어. 전주사고의 실록 덕분에 지금 우리는 조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Q. 왕을 상징하는 것을 알아볼까?

어진

임금님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해. 조선시대에는 왕의 얼굴은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왕의 모습은 털 한 가닥이라도 다르지 않게 있는 그대로 그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위엄까지 담아서 그려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화가들만이 임금님 얼굴을 그릴 수 있었어. 그림도 한 명이 그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얼굴 부분과 전체 윤곽을 그리는 주관화사, 임금의 옷을 그리고 색칠하는 1~2명의 동참화사, 주관화사를 도우며 배우는 3~4명의 수종화원이 함께 그렸어.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은 화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자칫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했을 거야.



일월오봉병

어좌 뒤에는 늘 일월오봉병이 있어. 일월오봉병은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물을 그린 그림을 이용해 만든 병풍이야. 일월오봉병에 그려진 것들은 온 세상과 우주를 상징해. 특히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며 낮과 밤을 환히 비춰 주는 해와 달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지.



▲ 어좌



▲ 일월오봉병

어좌 (용상)

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해.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지.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붉은색 칠 바탕에 금으로 용과 구름을 그려 넣었어.



어보

번쩍번쩍 빛나는 도장! 이건 임금님의 도장 '어보'야.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왕실의 혼례나 책봉식 등 궁중예식 때
신하들이 제작해서 왕과 왕비에게 바치는 거야.



어보의 손잡이 모양은 사용하는 사람의 권위를 상징
해. 거북이 모양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의 도장은 거북이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용모양 어보도 보이지?

이건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시고 스스로 황제
가 되신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황
제를 상징하는 용모양도 사용된 거야.



자, 오늘 우리의 시간여행은 여기까지야.
태항아리, 의궤, 앙구일구 등을 통해
조선시대 왕세자와 왕이 어떻게 생활하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어.
지금 남아 있는 경복궁, 조선왕릉, 경기전에 가면
조선시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어.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모여 만들어져.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뿌리가 되어 지금의 나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 나갈 거야.



▲ 세종금보



▲ 제고지보



만든 사람들

총괄 신상호
기획 김은영
글 김은영, 박한나
감수 김현정
윤문 이해숙

사진협조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간송미술재단
문화재청 장덕궁관리소
사진작가 황용운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김승희
발행처 국립전주박물관
550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송곡개로 249
T 063,220,5651~2 | **H** www.jeonju.museum.go.kr

일러스트 이현정
디자인 더블유프로젝트
일러두기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전주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